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6호 【루계 제2642호】

주체110(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음력 3월 6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박정천 조선인민군 원수, 김여정, 현송월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녀사와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고 영생홀들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주체조선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으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만년초석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태양절경축 중요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4월 15일 태양절경축 중요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 《영원히 당을 따라》를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향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억세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최룡해, 조용원, 리병철, 김덕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부서 간부들, 직원들, 가족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국무위원회연주단, 공훈국가합창단을 비롯한 중요예술단체 예술인들은 위대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선로동당을 조선혁명의 강위력한 전투적참모부로 비상히 강화발전시키고 반만년민족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준 당중앙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혁명의 년대들에 울려퍼진 추억깊은 송가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력사의 모진 격난속에서도 위대한 사상의 힘, 단결의 억센 힘으로 인민을 이끌어 이 땅우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원을 펼치고 불패의 강대국을 탄생시킨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폭풍같은 환호성이 또다시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령도를 가장 견실하게,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의 실행에 일심전력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할 철석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4월 13일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촬영장소는 제6차 세포비서대회를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며 당세포의 전투력과 투쟁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시여 전당강화의 획기적계기를 마련해주신데 이어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신뢰심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특출한 령도력으로 우리 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혁명의 강위력한 전투적참모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리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세포비서들이 이번 대회에서 제시된 세포강화, 세포단결의 사상과 과업을 깊이 새기고 백배로 분발하여 수십만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오늘의 총진군을 힘차게 추동하는 당정책관철의 전위대오로 더욱 강화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대회장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세포비서들이 조선로동당의 핵심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고무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면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결사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앞당기는데 참답게 이바지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민족단합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평생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일찌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을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신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을 령도하시는 복잡다단한 나날에 전체 조선민족이 단결하고 또 단결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오시였다.

지금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83(1994)년의 첫아침에 하신 신년사의 구절구절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풀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우리가 내놓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합하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7천만동포들의 숭고한 념원을 구현하고있다고 하시던 그날의 절절한 교시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82(1993)년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수령님의 탁월한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한 경험과 업적의 총화이며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가 반드시 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후 새 사회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대단결로선을 구현해오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리정표를 받아안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게 되였다.

당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통일의 큰 열쇠》, 《통일의 지름길》, 《민족구원의 위대한 경륜》, 《7천만 겨레의 오늘의 좌표와 래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민족통일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신심드높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고 해외동포들도 이 강령을 두고 《온 겨레를 통일에로 부르는 화해와 단합의 기치》, 《애국애족의 강령》이라고 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나갔다.

돌이켜보면 민족단합의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주체25(1936)년 5월 5일 력사적인 동강회의에서 조국광복회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시였던 어버이수령님이시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한자한자 작성하시고 발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온 민족이 일심동체가 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총동원된다면 일제는 괴멸될것이고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라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음성이 오늘도 사람들의 귀전에 울리는것만 같다.

해방후 외세에 의해 민족분렬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였던 주체37(1948)년 4월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를 마련해주시고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넓은 도량으로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경륜을 새겨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태양같은 그 미소를 우리 겨레는 잊지 못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민족의 분렬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해 북과 남이 공동으로 발표한 7.4남북공동성명과 1990년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애국적이며 거족적인 통일운동련합체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의 결성에도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의 통일을 안아오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다.

이처럼 대해같은 어버이수령님의 넓으신 도량과 포옹력에 깊이 감복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한 피어린 나날에 최동오나 박인진, 김정부를 비롯한 각계층이 반일애국의 기치아래 굳게 뭉치였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김구, 최덕신, 최홍희와 같은 사람들이 통일애국의 대하에 합류할수 있었다.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덕에 매혹된 사람들이 어찌 이들뿐이겠는가.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동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이시였으며 그 누구와도 비길수 없는 숭고한 인덕으로 만사람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하늘과 같은분이시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시기 위해 고귀한 생애의 전기간 만나주시고 정을 나누신 동포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사상과 정견, 출신과 경력이 어떠하든 위대한 수령님을 한번 뵈오면 그이의 뜨거운 인정미와 동포애에 머리숙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시였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시여 온 겨레가 통일위업실현에서 틀어쥐고나갈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오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의 진두에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을 다시금 명확히 천명하시고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헌신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민족의 앞길은 밝고 온 겨레가 바라는 자주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라는것이 태양절을 경축하며 우리 겨레가 다시금 가다듬은 확신이고 의지이다.

조 광 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길에서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주체82(1993)년 3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재미동포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킨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능히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 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통일운동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

주체79(1990)년 8월 1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였던 대표들을 친히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표 여러분들은 해외에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온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략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통일운동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인것만큼 조국을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온 겨레가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하며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굳게 뭉쳐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대표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본사기자

4월의 봄 그리움의 봄이여!

만경대고향집

김 태 룡

4월이면 누구나 찾아오는 집
이 나라에 단 하나
초가이영을 얹은 집이여
꽃이 웃는 성지에 숭엄히 자리잡은
아, 만경대고향집

시계조차 없는 초가집이여서
예선 세월도 흐름을 멈추었는가
언제 와봐도 옛 모습 그대로인 집
만경대일가분들 이 집에 계시며
어서 오라 사립문도 열어놓으신듯

너무도 낮은 고향집 이 추녀아래서
조선독립의 높은 뜻 품으시고
너무도 작은 이 뜨락에서
삼천리강토 가슴에 안으시고
열혈로 혁명의 의지 벼리시던
수령님

태양은 하늘에 솟는다지만
나라없는 설음과 울분을 가시여줄
민족의 태양은 이 집에서 솟아
올랐다
어둠질은 이 나라에 빛을 뿌려준 집
봄이 없던 강산에 봄을 준 집이여

살길 찾아 고향을 등지고 떠나던
이들
그들에게 고향을 찾아주시려
빼앗긴 나라를 찾으시려
수령님 눈보라 천리길 첫 자욱
떼신 집
아, 고향집에 계신 날보다
떠나계신 날이 더 많으셨던 우리
수령님

해마다 찾아오는 고향집이건만
올 때마다 가슴은 뜨겁게 젖어
드나니
이 집이 없었다면 우리의 고향과
귀여운 아이들 웃으며 자라는
따뜻한 집이 있으랴
삶의 품으로 안겨사는 조국이
있으랴

이 땅의 모든 행복의 시원을 열고
존엄과 강대함의 시대를 탄생
시킨 집
하기에 태여난 고향은 서로 달라도
누구나 정답게 부르고부르는
만경대고향집

천년이 흘러 만년이 흘러
강산이 변한다고 달리 부를수 없는
인민의 영원한 고향집
세대는 바뀌여도 우리 후손들
찾고찾을 태양의 집이여
오, 만경대고향집 조선의 고향집
이여

선물

리 철 준

뜻깊은 태양절 이 봄날
나의 딸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첫걸음마 겨우 떼는
너무도 애어린 한살잡이 철부지가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았습니다

태양절이 어떤 경사로운 날인지
선물이 무엇인지 알수도 없는 아기
작은 가슴에 미처 다 안을수 없는
선물을 앞에 놓고 샐긋샐긋 웃건만
어쩐지 이 가슴은 뭉클 젖어옵니다

태여난 첫해부터 내 받아안던 선물
나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린시절 누구나 받아안던 선물
추억속에 소중히 간직된 그 선물
오늘은 나의 딸이 받아안았으니

아이들 제일 사랑하고 아껴주시며
수령님과 장군님 베풀어주시던
그 사랑
세월이 간들 잊을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선물을 받아안으며
따뜻한 손길 자애론 어버이품에서
나의 행복 우리 미래가 꽃펴나지
않았습니까

그 손길이 내 딸에게 와닿은것
입니다
그 품이 나의 딸을 안은것입니다
나를 안아 키운 수령님들의 사랑은
흘러간 시대의 추억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 딸의 생에도 소중히
이어집니다

이제 한해 또 한해 자라날 딸애
모르고 받은 사랑 알게 될것입니다
선물을 놓고 생각깊은 이 아버지처럼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님사랑
그 사랑 이어주시는 원수님 고마워
언젠가는 이 아버지처럼 눈굽
뜨거울것입니다

딸애의 선물 다시 안아봅니다

사연깊은 지팽이

김 송 림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심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신 수령님
인민을 위하신 성스런 그 한생엔
오늘도 인민이 마음속에 부여
잡고
놓지 못하는 지팽이가 있어라

인민들과 함께 고락을 나누시며
품고계시는 심중의 모든것을
다 터놓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
건만
지팽이를 드신 자신의 모습만은
인민들앞에 보인적 없으셨거니

연백의 벌판에 서면
푸른 벼이삭 품은 그 땅이
말해주누나
자신께서 지팽이를 든것을 보면
인민들이 가슴아파할가봐
수령님 그 넓은 포전길
그리도 힘겹게 걷고걸으시였
음을

이 지팽이가 동무들을 울린다고
자신께선 건강하다고
그만 울음을 그치라고 이르시던
못 잊을 그날의 사연은
세월이여, 너 어느 갈피에 새겼
느냐

내가 지팽이를 짚는것을
우리 인민에게 말하지 말라고
인민들이 알면 걱정한다 하시던
수령님 그 절절한 당부의 음성
오늘도 저 봄하늘가에서 울려
오는듯

너무도 몰랐구나
만나뵈오면 기쁨에 겨워
그이 옷자락에 저저마다 매달리면
서도
힘겨움 언제 한번 내색조차 않으신
어버이의 깊으신 그 마음을

팔순을 넘기신 고령이시건만
우리를 잘살게 하여주시려
힘겨워도 쉬임없이 가고가신
수만리 그 이민위천의 길우엔
아, 인민이 눈물을 쏟아 더듬는
못 잊을 자욱

눈이 내려 덮여지고 비내려 지워
지랴
애민헌신의 그 자욱은
수령님 평생 소중히 품어안으신
이 땅우에 행복의 꽃으로 피여나고
인민은 수령님의 그 헌신의 자욱
그리움이 넘치는 가슴에 품고
살거니

우리가 누린 행복 어떻게 온것인지
오로지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의 천만로고 얼마나 크고
큰것인지
아, 지팽이가 다 말해주어라
잊지 못할 수령님 한평생처럼
영원히 잊지 못할 사연깊은 지팽
이여

4월의 밤이야기

김 영 일

봄밤이 깊어가니
추억도 밤처럼 깊어가는가
누구나 뜨겁게 회억하는 수령님
한평생
그 생애엔 축배잔 끝내 들지
못하신
생신날의 밤도 있어라

온 나라가 기쁨으로 경축한 4월 15일
머나먼 현지지도길에서
밤늦게야 평양으로 돌아오신
수령님
늦게나마 축원의 축배잔 받으시였
건만
어인 일인가 생각도 많으시였어라
그 무슨 사연을 안고계시는가
오래도록 축배잔을 쥐신채
어둠질은 창가 바라보시던 수령님
무겁게 하시던 말씀이여

내 민족의 절반을 남에 두고
이 잔을 들자니
눈물이 난다고
가슴이 아프다고…

아, 생각이나 했으랴
어느 하루인들 분렬된 조국을 두고
마음 편하신날 없으셨건만
탄생일의 그날마저도 남녘의
동포들
그 생각으로 그처럼 가슴아파하실
줄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마음 못
놓으시고
가물이 들면 남쪽하늘 바라보시며
지새우시던 밤들은 그 얼마랴
분렬이 해와 해를 넘길 때에도
저며오는 아픔 달래지 못하신
수령님

인민의 축원을 받으시며
기쁨속에 계셔야 할 탄생일이건만
늘 마음에 품고계시는 겨레들
생각에
그 가벼운 축배잔도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들지 못하
시였거니

분렬된 조국의 아픔을 안으시고
끝내 축배잔을 들지 못하신
수령님
탄생일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겨레를 위해 통일을 위해
모든것 다 바쳐오신 어버이
수령님 한평생의 밤들은 그렇게
깊어갔다

이역에도 목란꽃이 피였습니다

—한 해외동포의 일기중에서—

리 송 일

조국에서 수천리 머나먼 곳
이역의 내 집뜨락에
활짝 피여 향기 뿜는 목란꽃
그 정갈한 꽃잎우에
뜨거운 마음 나는 얹어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 꽃
꿈결에도 그리운 조국의 모습
입니다
비록 이역땅에 살아도
삶의 뿌리 조국땅에 내리고 사는
순결한 나의 넋 하얀 잎에 어렸
습니다

머나먼 타향의 하늘아래서
조국의 하늘 그리움에 바라보던
이 몸
그날부터 아니였습니까
수십년전 조국땅 처음으로 찾아
주석님 자애의 품에 안길 때
내 인생에 비로소 따사론 해발
비쳐든것은

몸은 이역에 살아도
묘향산에 피는 목란꽃처럼 살라고
이름도 《향란》이라 지어주신
주석님
그날부터 나는 조국의 딸
내 생은 주석님 계셔 꽃다운 인생
되였습니다
그날은 또 언제입니까
조선사람의 넋을 잊지 말고 살라고
주석님 보내주신 치마저고리
입어도 보기 전에 눈물로 먼저
적신
그 저고리 지금도 내 집의 가보
입니다

아, 심심산속에 피여난 꽃
목란이라 이름지어 국화로 해주신
주석님
어찌 산중의 꽃만이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타향에 묻혀살던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딸자식처럼
피워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꽃처럼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 내렸어도
어이 로쇠로 시들었다 하겠습니까
푸르청청 목란꽃나무 잎새처럼
조국을 위하는 마음엔 락엽이 없고
따르는 마음엔 피고지는 계절
없습니다

정성다해 꽃을 가꾸어갑니다
주석님 주신 정 가슴에 품어안고
여생을 애국의 뜻으로
참답게 가꾸어가렵니다
언제나 향기풍기는 목란꽃처럼
살아가렵니다

위대한 태양의 위업 천만년 빛내여가리

— 각지에서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 —

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력사적인 진군방향을 따라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가려는 전인민적지향과 의지가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태양,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대통운의 날을 맞으며 조국땅 방방곡곡에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이 끝없이 차넘쳤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온 나라에 뜨겁게 굽이쳤다.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여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펼쳐주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각지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태양절을 맞으며 중앙사진전람회와 전국소묘, 서예축전이 진행되였다.

전람회장과 축전장을 찾은 참관자들은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념원과 세기적숙망을 현실로 꽃피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끝없는 로고와 헌신의 력사를 전하는 영상사진문헌들과 소묘, 서예작품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태양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중앙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있었다.

동평양대극장에서는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있었다.

서곡 《태양절을 노래하세》, 관현악과 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에서 혁명하는 보람과 생의 희열을 찾으시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를 열렬히 칭송하였다.

피바다가극단 예술인들은 평양대극장에서 혁명가극 명곡, 명장면묶음공연을 진행하였다.

우리 인민들과 새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세기를 이어 커다란 감화력으로 빛을 뿌리고있는 5대혁명가극의 명곡과 명장면들은 관람자들의 깊은 감명을 자아냈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 공연이 국립연극극장에서 있었다.

공연은 당대 사회의 시대상과 각계층 인물들의 생활을 통하여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사상과 오로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길만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새겨주었다.

봉화예술극장과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된 국립민족예술단, 국립교예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과 종합교예공연은 명절을 맞는 수도시민들에게 희열과 랑만을 더해주었다.

중앙과 평양시의 예술선전대, 예술소조들도 수도의 곳곳에서 야외공연무대를 펼치여 명절분위기를 더해주었다.

중앙예술경제선전대, 청년중앙예술선전대,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 녀맹중앙예술선전대, 철도예술선전대, 수도건설위원회예술선전대, 평양시예술선전대원들은 위대한 인민의 수령을 우러러 천만심장이 터친 위인찬가, 태양의 력사로 무궁번영하는 우리 공화국과 더불어 영원할 충성의 노래들을 무대에 올렸다.

중구역, 모란봉구역, 평양교원대학, 옥류아동병원,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의 예술소조원들도 창전네거리, 삼지연극장, 광복지구상업중심, 류경원,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향만루대중식당 등의 주변에서 이채로운 야외공연무대를 펼쳐 태양절을 맞이한 수도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자강도, 강원도, 함경북도 등지에서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대고조전구마다에서 새로운 혁신과 전진을 이룩해나갈 근로자들의 투쟁열의가 황해남도, 함경남도에서 진행된 경축공연에서 분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수령복, 태양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끝없는 환희와 행복을 노래한 황해북도예술선전대원들의 야외공연도 태양절을 맞는 근로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본사기자

태양절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 진행

주체조선의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른 뜻깊은 4월의 봄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의 감격과 환희가 끝없이 넘쳐나는 속에 15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진행되였다.

초대석을 비롯한 광장주변은 명절의 아침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 뜻깊은 이밤을 경축하며 강국의 더 밝은 미래를 그려주는 야회와 황홀한 불의 세계를 보기 위해 모여온 시안의 근로자들로 흥성이였다.

수도의 밤하늘가에 《태양절을 노래하세》의 노래가 울려퍼지며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시작되였다.

청년학생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우리 민족의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경축의 춤바다를 펼치였다.

한평생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세월의 온갖 풍상을 다 헤치시며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다져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의 노래선률과 함께 야회장에 뜨겁게 넘쳐흘렀다.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며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여 인민이 터친 흠모의 노래 《친근한 이름》의 선률이 광장에 메아리쳤다.

손에 손을 잡고 흥겹게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의 열정넘친 모습을 바라보는 군중들은 위대한 태양의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의 래일은 더욱 더 밝고 창창할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청춘의 희열과 랑만으로 야회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오색찬연한 축포의 불줄기들이 일제히 솟구쳐올라 태양절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태양절을 대대손손 빛내여가는 인민의 끝없는 격정과 기쁨의 분출이런듯 경쾌한 노래선률을 타고 형형색색의 축포들이 솟구쳐올라 하늘가에 분홍빛, 주홍빛, 초록빛 등의 빛발을 뿌리였다.

태양절은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통운의 날, 대경사의 날이며 **김일성**민족의 탄생일임을 경축의 밤하늘가에 새겨주며 축포의 화광이 황홀경을 펼치였다.

하늘에는 천변만화하는 축포의 불보라, 꽃보라가 펼쳐지고 광장에는 경축의 춤물결이 끝없이 설레이며 4월의 봄명절의 경축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축포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속에 청년학생들은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사는 크나큰 행운을 전하는 《그 품이 제일 좋아》의 노래를 합창하며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군중들은 충천한 불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숭고한 리념을 들고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위대한 당중앙에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태양절의 밤을 이채롭게 장식한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는 태양민족이 맞이한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신심과 용기를 더해주었다.

본사기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 ◎◎◎

◇ 평양에는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 인재교육의 원종장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주체103(2014)년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펴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훌륭히 개건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주체104(2015)년 11월 새로 개건된 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가 철저히 반영되였으며 당의 후대관이 그대로 비낀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2016년 촬영

◇ 공화국의 학생소년들이 안겨사는 조선로동당의 품을 형상한 건축물의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꾸려진 궁전에는 콤퓨터, 물리, 서예, 가야금 등 소조실들과 극장, 체육관, 수영관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면모가 일신됨으로써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세세년년 빛내여갈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모두가 부르고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와 더불어 이 땅우에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춘경

과학기술열풍으로 ❖❖❖ ❖❖❖ 끓어번지는 공장

얼마전 우리는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 떨쳐나선 애국편직물공장을 찾았다.

공장정문에서 우리와 만난 리영란부원은 과학기술을 앞세워 인민들에게 안겨줄 질좋은 편직물을 생산하고있다고 하면서 준비직장으로 이끌었다.

그곳에 들어서니 즐비하게 늘어선 대환기들과 련속 감기여지는 천통구리들이며 재빠르게 손을 놀리는 준비공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알고보니 공장에서는 대환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생산을 활성화하고있었다.

지난 시기에는 설비고장으로 생산정상화에 지장을 주군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교훈을 찾은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편직물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생산공정의 현대화에서 찾고 기술혁신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속에서 과학기술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 이 과정에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혁신안들이 나왔다.

생산을 보장하면서 설비개조, 현대화를 하자니 헐치 않았지만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이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고무도와 량면대환기에 조종장치를 도입하여 편직물의 생산속도를 높이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편직물의 생산량과 질을 종전에 비해 훨씬 끌어올리였다.

이 나날 과학기술에 생산활성화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절감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기계를 새롭게 개발하여 질좋은 내의와 운동복을 생산할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혁신의 불길은 준비직장만이 아닌 다른 직장들에서도 타번지고있었다.

염색직장에서는 앞선 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염색의 질을 높이고있는가 하면 가공직장에서도 재단작업을 선행시키면서 증산절약, 재자원화사업을 적극 벌려 많은 천을 절약하면서도 제품생산을 훨씬 늘이고있었다.

《우리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과 생산현대화를 위한 현상모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기발한 착상과 인민들의 미감에 맞는 새 제품도안들을 더 많이 내놓도록 하고있습니다.》

리영란부원의 말이였다.

돌아볼수록 과학기술열풍으로 끓어번지는 이 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의 뜨거운 열의를 페부로 느낄수 있었다.

우리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과학기술을 비약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좋은 편직물을 더 많이 생산해낼것이라는것을 믿어마지 않았다.

본사기자 림광훈

우리 공장, 우리 제품

특색있는 《삼일포》 제품들

평양시 락랑구역에 각 지방의 토산물로 식료품을 생산하여 유명해진 삼일포특산물공장이 있다.

공장에서는 농토산물과 천연식물들을 주원료로 한 갖가지 식료품들과 주류, 차류, 고려약류, 꿀류 등 수백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는 최신식식료가공설비들과 용기생산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춘 식료가공 및 제품생산공정이 있다.

새 제품개발을 경영전략으로 내세우고있는 공장에서는 최근에 고추씨기름, 분지기름을 비롯한 수십가지의 제품을 더 늘이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98(2009)년 4월 몸소 삼일포특산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국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갖가지 식료품을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내는 공장의 모범을 높이 평가하시고 새로운 식료가공공업혁명의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삼일포특산물공장의 제품들은 평양시에 있는 삼일포특산물상점을 비롯한 상업봉사단위들에서 판매되고있다.

본사기자

수필

웃음속에 비낀 래일

요즘은 누구를 만나도 모두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야기이다. 설계가 멋있다느니, 1만세대 살림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느니…

마치 자기들이 살 집인듯이 기뻐하며 말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엔 하나같이 밝은 웃음이 가득 어리고 주고받는 말마디들에선 부러움과 긍지가 그득그득 묻어난다.

그런 모습들을 보느라면 자연 며칠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군 한다.

길을 가던 나는 어느 한 공원의자에 앉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있기에 멋적었지만 귀를 기울였다.

가만 보니 그들은 손전화기로 찍은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형성도안을 보고있었다. 아마도 거기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건설현장에 가서 찍어온듯싶었다.

《직접 가보시우. 거리형성도안이 희한합디다. 아래는 봉사시설들을 그쯘히 갖추고 훤하게 뻗어나간 거리와 멋쟁이살림집들을 보니 여기서 살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듭디다.》

《욕심두 원, 지금 사는 창전거리는 어떻게 하구요.》

《그건 약과우다. 오늘 아침 우리 집 막내딸이 하는 소리가 자기는 어제 밤 1만세대 살림집에 입사하는 꿈을 꾸었다나요.》

《아니, 그 집 딸은 시집도 안 간게 아버지보다 욕심이 더 굴뚝같구려. 하하하…》

그들의 이야기에 심취되여 저도 모르게 따라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 그득한것이 차올랐다.

웃음은 사람의 정신심리상태의 반영이다. 사람은 생활과정에 즐거움과 행복, 기쁨을 말과 함께 웃음으로 나타낸다.

하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웃음은 어쩌면 저리도 구김살없이 밝은것인가.

세계를 휩쓰는 보건위기로 인해, 끊임없는 내란으로 사랑하는 혈육들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애와 눈물, 불안과 공포속에 날과 달을 보내고있는 오늘의 세계이다.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로 집과 가산을 잃고 한지에 나앉아 울고 사회에 범람하는 각종 총기류범죄로 마음편히 숨쉴수 없는것이 또한 오늘의 세계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남들처럼 자연재해도 당했고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제재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련도 겪고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겹쳐든 난관앞에서 비관에 빠져 맥을 놓고 앉아서 울지 않았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우리 인민을 제일 잘사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자!

오로지 이 하나의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시며 모든 국가정책과 로선, 혁명실천도 인민을 위함에 바치시고 위민헌신의 뜨거운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 계시기에.

친부모도 주지 못한 하늘같은 그 사랑에 울었고 다가올 래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웃었다. 그렇다. 공화국인민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남들이 영원히 가질수 없는 삶의 목표와 자부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꼭 잘산다. 인민의 리익과 복리를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가 계시여 우리가 바라는 리상과 념원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로 최악의 고난과 시련도 웃으며 헤쳐왔고 다가올 래일도 웃으며 마중가고있는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바라보느라니 늘 거니는 거리의 풍경이 별스레 정겹게 안겨왔다. 사람들의 씩씩한 발걸음도, 유쾌하고 명랑한 웃음소리도…

리창식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는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제도가 지어낼수 없는 참다운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보건제도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보건제도는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이다.

취재길에서 우리는 여러 국제기구와의 사업을 맡아보고있는 최숙현 보건성 부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최숙현부국장

《만민복지》의 간판밑에…

《긴것과 짧은것, 좋은것과 나쁜것은 대비해보아야 알수 있듯이 다른 나라들에서 리용하고있는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을 놓고서도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잘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숙현부국장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리용하고있는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들에 대하여 설명을 이어갔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리용하고있는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들가운데서 가장 단순한것은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의료봉사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일명 호주머니지불방식이라고 하는 이 방식은 이름그대로 환자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필요한 의료봉사도 받을수 있고 의사들과의 상담도 요구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 방식들로서는 세금을 기초로 하는 국가의 재정지출방식과 개별적주민들의 로임이나 때로 기업체나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사회건강보험제에 기초한 지출방식, 사영보험회사의 보험금에 의한 지출방식들을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방식들은 모두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자본주의적가치관에 뿌리를 두고있습니다.》

최숙현부국장은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이 일정한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있는 사실을 실례로 들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이 나라들에서의 《무상》이라는것은 어디까지나 인민들에게 차례져야 할 수입액에서 세금과 보험금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걷어모은 자금에 기초한것으로서 그마저도 수술비나 전문과적치료비와 같은 항목들에 한하여서는 개인들이 부담하게 되여있다는것이였다.

사영건강보험에 의한 지출방식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의사나 환자나 다같이 보험에 든것으로 하여 값비싼 의료봉사를 요구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의료봉사지출비도 높아지게 된다. 대다수 나라들에서 일반주민들과 실업자, 빈민층들은 보험료가 너무 엄청난것으로 하여 애당초 보험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병이나도 병원문전에 가보지 못한다는것이였다.

《더이상 론하지 않아도 이러한 방식들이야말로 돈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방식이라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습니다.》

▶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의료봉사지출방식들이 어떤 현상들을 산생시키고있는지 알고싶다.

《자본주의나라 병원들에서는 환자들에게 과잉처방, 과잉검사 등으로 치료비를 엄청나게 부과하여 큰 리윤을 얻고있습니다. 병원에 들어오면 환자는 자기의 병상태와는 관계없이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한 진찰비와 검사비는 매우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의사가 복잡한 검사과정을 단축할수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 병원에 리윤을 주지 못했다는 리유로 해고당해야 하니까요.》

그는 보건분야에서의 비효과적이며 불합리한 재정지출 또한 극도에 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인민들에게 응당 차례져야 할 수입액의 일부가 보건비로 지출된다고는 하지만 이 분야의 변호사, 사무원, 사법계인물들의 로임을 비롯하여 정부가 소비하는 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으로 하여 결국 인민들은 자기들의 수입액에서 떼여낸 자금에 비해 너무도 보잘것없는 의료봉사를 받게 된다니 그럴만도 했다.

《또 한가지 언급할것은 보험을 실시하고있는 대부분 나라들에서 보험기준에 암과 같은 불치의 병들에 대한 치료를 포함시키지 않고있다는것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한 의료봉사를 받으며 건강을 믿음직하게 보호받을수 있겠습니까.》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제약산업들이 새 약품개발을 독점하고 폭리를 보고있는것도 문제라고 한다. 실례로 에이즈환자들을 치료할수 있는 약물을 충분히 눅은 가격으로 제조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물생산방법이 일부 기업들의 독점물로 되여있기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약물생산을 하고싶어도 하지 못하고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입에 맞게 약을 눅게 구입할수 없다는것이였다.

《아무리 눈앞에 현대적인 병원이 세워져있어도, 유능한 의사들과 명약들이 있다고 해도 절대다수의 빈곤한 사람들은 병이 나면 죽어야만 하는것이 바로 〈현대문명〉, 〈만민복지〉를 떠드는 자본주의보건제도의 랭혹한 현실입니다.》

인류의 리상, 전반적무상치료제

▶ 그러고보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돈 한푼 안 들이고 마음껏 치료를 받으며 무병장수를 누려가는 공화국인민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갈마든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이건, 농민이건, 어린이건, 늙은이건 모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것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외래치료, 입원치료, 왕진치료를 비롯한 온갖 형태의 의료봉사가 100% 무상이며 진찰비, 실험검사비, 기능진단비, 수술비 등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가 국가의 전적인 부담에 의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있지 않습니까.》

섬마을의 한 녀인을 위해 비행기가 날고 외진 산골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진료소가 세워지고 의사들이 환자를 찾아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의 혜택을 다름아닌 이 나라 인민모두가 받아안고있는것이다.

어찌 그뿐이랴.

위대한 수령님들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지난 수십년간 이 땅에 솟아난 치료예방기관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훌륭히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안과종합병원,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문수기능회복원, 삼지연시인민병원을 비롯하여 각 도와 군은 물론 외진 산골에 이르기까지 뻗어있는 보건기관들…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전국에 도입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의사들이 일정한 수의 가정세대를 담당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주는 이런 고마운 세상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세계를 휩쓰는 악성전염병의 영향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심각한 보건위기가 조성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지만 이 땅에서만은 누구나 무병무탈하여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있다.

경제적타산에 앞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먼저 보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자본주의보건제도와 구별되는 근본특징이라고 최숙현부국장은 강조하였다.

하기에 외국인들이 고마운 보건제도에서 무병장수를 누려가는 공화국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에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약값, 치료비란 말을 모르고 사는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복인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것이다. 이런 사회적혜택이 법률적으로 담보되고 시행되는 곳은 지구상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진정한 리상향이다.》,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면 누구나 놀라지 않을수 없을것이며 서방의 선전이 새빨간 거짓이라는것을 깨닫게 될것이다.》며 그 담보에 대해 의문을 감추지 못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해준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진정한 의사는 다름아닌 당이며 국가이라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생각했다.

건강하여 행복하게 오래 살려는것은 인류의 공통된 심정이다.

허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무병장수에 대해 상상조차 할수 없다. 오직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그러한 념원이 현실로 꽃펴날수 있는것이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가 절대로 흉내낼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이렇듯 훌륭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내가 살고 이 나라 인민들모두가 살고있구나 하는 행복감이 그들먹하게 차올라 가슴이 뿌듯했다.

최숙현부국장은 말한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받는 혜택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듯이 우리 보건일군들이 수천건의 론문을 쓰고 해설을 한다고 해도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에 대해 다 이야기할수 없을것입니다.》

진정 공화국의 사회주의보건제도는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홍범식

《국회비준 거부하라》

—남조선 각계의 요구—

최근 남조선에서 외세가 강요하는 말썽많은 《방위비분담금》문제가 또다시 여론화되면서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고 이후 4년동안 매해 국방비증가률에 따라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한다.

력대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남조선이 부담할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때마다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그 무슨 《동맹》과 《안보》를 운운하며 미국의 날강도적인 요구를 그대로 받아물었다.

이번에도 남조선당국은 《안보》라는 너울아래서 외세와 쑥덕공론하고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뭉텅 떼여 상전에 섬겨바치는 굴욕적인 《특별협정》을 체결하였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은 자신들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외세의 날강도적행위와 당국의 사대매국적인 망동을 규탄하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국회》비준거부를 요구하는 항의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평화통일시민련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40개 단체는 얼마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국회》앞에서 제11차 남조선미국《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국회》비준동의 거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체결은 미국의 일방적요구만 반영된것으로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있다.》면서 《국회가 비준동의를 거부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보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성명을 발표하여 《〈COVID-19〉극복을 위해 민생을 중심으로 한 재정의 효률적인 배분이 중요한 지금 미군주둔비용을 13.9%나 인상한다는것은 납득할수 없다. 우리가 미군에 지불하는 총비용은 1조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에 더해 직간접지원비 등을 포함하면 년 3조원이 넘는다. 기지사용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있는 부당한 구조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별협정의 존재리유에서부터 굴욕적협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살피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평화, 국민의 리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주광일

변함없는 동족대결의 광기

얼마전 남조선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제134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앞으로 추진할 무장장비도입 및 개발사업들을 심의의결하였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이미 전부터 끌어들이던 미국산 무장공격직승기의 2차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신형이지스구축함을 건조할것이라고 한다.

또한 소해직승기를 확보하고 주력땅크의 성능개량사업과 함선의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 등도 추진한다고 한다.

하나하나 가 수억~수십억US$가 투입되는 이 계획들에서 전쟁화약내가 물씬 풍겨난다.

남조선호전세력의 동족대결, 반공화국전쟁광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없이 웅변하는 자료들이다.

남조선에서 피여오르는 전쟁불구름, 대결먼지들이 가져올 후과는 매우 엄중하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첨단무기의 개발과 매입에 광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은 그들이 누가 뭐라든 전쟁준비를 다그치겠다는것, 동족과 한사코 전쟁대결을 하겠다는것으로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소귀에 경읽기라는 속담도 있지만 남조선호전세력에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남조선민심과 온 겨레의 요구, 시대와 인류의 지향은 안중에도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악성전염병사태속에 남조선인민들이야 죽든살든 미국산 첨단무기를 끌어들이고 개발하는데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퍼붓고 침략전쟁연습과 전쟁준비에 미쳐돌아가는 남조선호전세력의 책동은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의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오염수해양방출결정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청년들의 불우한 처지, 누구탓인가

최근 남조선의 여야정당들이 청년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모지름을 쓰고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당에 대한 청년들의 싸늘하고 무관심한 태도에 변명으로 일관해왔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다고 한다.

청년이 없는 청년정책과 일자리대책을 세웠고 청년들의 분노를 무시한채 오만을 부렸다고 머리를 숙이면서 앞으로 모든 정책에 청년들의 립장을 반영할것이라고 하고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보충선거결과를 두고 《민주당이 못해서 이긴것》이라면서 《선거유세때 청년들을 무대에 내세운게 신의 한수》라고 자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소속 《국회》의원들은 청년들의 분노를 야기시킨 당국의 허물을 파헤쳐 적극 여론화하고있다고 한다.

그런걸 보고 흙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흉본다고 하던가.

과연 남조선청년들의 분노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

지금 남조선청년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헬조선》(지옥《한국》), 《N포세대》(모든것을 포기한 세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노답》(답이 없다.), 《나레기》(나는 쓰레기) 등이 언제 생겨난것인가를 보면 잘 알것이다.

이전 보수《정권》은 《청년고용의무화》, 《반값등록금》 등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어느 하나 실행한것이 없었다.

하루 최소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것이 《반값등록금공약》이였고 일자리를 달라고 하니 《중동으로 가라.》는 소리만 해댔다.

청년들은 련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에서 삶을 통채로 포기한 《삶포세대》로 되고 《내 꿈은 정규직》에서 《내 꿈은 생존》으로 되였다. 당시에 나온 《금수저》와 《흙수저》, 《무중력청소년》, 《은둔형외토리》, 《청년실신사태》라는 말들은 남조선청년들의 불우한 처지를 잘 말해주는것이다.

그 시기에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대학가를 벗어나 보수《정권》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사회적대명사로 되기도 하였다.

오죽하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다 〈진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것은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하면서 《이대로는 못살겠다.》, 《나에게 죽창을 달라.》고 절규했겠는가.

이전 보수《정권》이 만든 《청년실신상태》의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물론 그런 청년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한 현 남조선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당시 권력을 악용하여 갖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죄도, 반성도 없이 당국의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잡기만 해온 《국민의힘》이다.

저들의 죄과는 당반에 올려놓고 그 누구의 《허물》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파렴치한 남조선보수야당이다.

보수세력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 남조선인민들의 분노가 언제, 어떻게 터지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전명진

살인마의 후예들이 너스레를 떤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지난 세기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일떠섰던 제주도인민봉기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식이 있었다.

일명 4.3인민봉기라고도 하는 제주도인민봉기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제주도인민들이 벌린 반미구국항쟁이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식민지예속화와 민족분렬책동에 매달려온 미국은 1947년 10월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키고 그 간판을 도용하여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꾸며냈으며 그의 감시밑에 남조선에서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실시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이 영구화될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였다.

제주도인민들은 《단선단정결사반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은 철거하라》 등의 구호를 들고 1948년 4월 3일부터 무장항쟁에로 넘어갔다.

제주도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은 자주적통일독립을 이룩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완강한 투지를 뚜렷이 보여준 애국적장거였다.

이번에 당국과 정계인물들이 모여 진행된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 사람들을 격분케 한것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행태였다.

《국민의힘》은 대변인의 론평을 통해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모든분들의 명복을 빈다.》, 《지난 세월 고통받은 희생자유가족과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과거의 상처치유와 함께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고 한다.

제주도인민봉기를 야수적으로 탄압한 살인자들이 누구인데 그따위 넉두리를 늘어놓는가 하는것이다.

《제주도민 70%를 죽여도 좋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제주도이지 제주도민이 아니다.》라는 외세의 지령대로 제주도인민들에게 《빨갱이》, 《폭도》, 《반란》의 루명을 들씌워 도내부락의 절반이상을 불태우고 7만여명의 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살인마들이 지금 《위로》, 《과거상처의 치유》를 떠벌이는 《국민의힘》의 조상들이다.

《국민의힘》의 조상들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그후 광주를 비롯한 자주, 민주의 함성이 터져오른 곳마다에 피비린 자취를 남기였다.

죄악의 력사는 세월이 지난다고 하여 잊혀지는것이 아니며 풍화되는것도 아니다.

오그라진 개꼬리 대봉통에 삼년두어도 아니 펴진다고 살인마들의 후예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제정을 걸음걸음 방해해나섰다.

조상들의 죄과가 드러나는것이, 그 불찌가 저들에게로 튀는것이 두려워서이다.

그들이 바라는것은 오직 권력뿐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그 무슨 《명복》이니, 《위로》이니 나발을 불어도 그것은 더러운 권력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억지로 내지른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본사기자 안권일

고질적인 사회적병폐

남조선에서 3월초에 터져나온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사건이 정치적문제로 확대되면서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있다고 한다.

이미 보도된것처럼 이 사건은 남조선에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속 직원들이 많은 토지를 구매하여 투기행위에 리용하려다가 시민단체들에 의해 폭로된 부정부패사건이다.

남조선에서 전체 주민의 절반이상이 제 집이 없이 세방살이를 하고있는 형편에서 당국의 부동산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감행한 이 사건은 《내 집마련》을 제일 큰 소망으로 여기고있는 절대다수 주민들을 완전히 절망에 빠뜨렸다고 한다.

당국에 대한 각계의 분노가 터져나온것은 당연하다.

사건이 발생하자 제일 열을 올린것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이다.

불난 집에 가서 옷을 말린다는 격으로 보수세력은 부동산투기사건을 정치적문제로 확대시켜 《반사회적인행위》, 《국기문란행위》라고 목청을 돋구면서 당국과 여당에 대한 《정권심판론》을 부르짖었다.

사실 부동산투기사건에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도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더우기 그들의 조상들부터가 부동산투기의 왕초들이 아닌가.

군부독재시기의 대규모권력형부정협잡사건인 수서지구주택지특혜분양사건, 정보사땅사기사건, 《청렴》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등장했던 리회창의 호화주택사건 등이 단적인 례이다.

세상을 들썩하게 한 내곡동주택부지매입사건, BBK주가조작사건 등으로 이전 집권자인 리명박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히우는 신세가 되였다.

죄지은자는 언제나 뒤가 켕기기마련이다.

하기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지금 현 당국이 《부동산적폐청산》을 최우선정책으로 내세우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부동산투기의혹조사의 대상을 확대하며 조사범위도 이전 보수《정권》시기까지 넓히려 하자 이에 격렬하게 반발하고있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만연되여온 부동산투기사건은 어느 누가 집권하든, 어느 당이 권력을 잡든 처방이 없는 고질적인 사회적병폐인것이다.

부동산투기사건을 통해서도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와 정치의 일단을 볼수 있다.

본사기자 김광혁

력사외곡에 광분하는 정치난쟁이

력사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그것은 력사에 귀중한 경험도, 뼈에 새긴 교훈도 수록되여있기때문일것이다.

사람들이 또 나라와 민족들이 지난 력사를 돌이켜보는것은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데 그 목적의 하나가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몸은 21세기에 있으나 사고는 20세기의 침략적이고 범죄적인 과거를 헤매이는 저능아들, 전범국의 후예들이 정치를 하는 나라도 있다.

일본이다.

지난 3월 30일 일본문부과학성은 다음해부터 사용될 일본고등학교 력사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를 공포하였다.

이번에 일본문부과학성이 통과시킨 교과서들에는 과거 일제가 일으킨 침략전쟁과 성노예범죄를 비롯하여 식민지지배시기의 죄악들을 없애거나 모호하게 표현하였으며 《독도령유권》주장을 기술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나 저들의 더러운 침략력사와 반인륜적범죄를 덮어버리려고 악을 쓰는 일본특유의 파렴치성과 도덕적저렬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추태이다.

일본의 과거범죄 특히 성노예범죄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특대형반인륜범죄로서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사실이다.

한두명도 아닌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짐승사냥하듯 랍치하여 성노리개로 유린하다가 전장에서 무참히 학살해버린 일제의 야수적만행에 대해서는 이미 생존자들의 증언과 수많은 문서들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그 력사적진실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은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은 적지 않은 교과서들에서 저들의 과거범죄와 관련한 내용들을 외곡, 수정하거나 완전히 지워버리는 망동을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저질러왔다.

그 앞장에는 일본의 교육을 책임진 문부과학성이 서있다.

오늘 일본에서 새 세대들에게 거꾸로 된 력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일대 선풍이 일고있는것은 군국주의우경화에로 줄달음치는 일본의 정치풍조가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력사교과서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일본이 과거의 피비린내나는 침략력사를 옳바로 인식하고 대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예민한 정치적문제이다.

또 옳은 력사관으로 새 세대들을 교육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척도로 된다.

그러나 일본은 진실, 사실 그대로의 력사를 가르쳐야 할 교육으로서의 본연의 사명감마저 짓밟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력사관과 복수주의를 주입시키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력사외곡에 이골이 난 정신병자들, 수치감도 느낄줄 모르는 도덕적패륜아들의 집합체가 일본정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력사를 부정하는것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자멸행위나 다를바없다.

일본이 력사외곡에 매여달릴수록 그들에게 차례질것은 국제적고립뿐이며 영원히 외로운 섬나라신세를 면치 못하는 결과뿐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단평 응당한 대접

남조선에서 이전 군부독재자들의 동상들이 천대를 받고있다고 한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세워져있는 전두환, 로태우의 동상이 사람들의 배격을 받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반란자의 동상을 설치하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학살반란자이자 부정축재범들의 동상을 그냥 둘수 없다.》고 하면서 강력히 항의하였다고 한다.

각계층의 항의로 전두환의 동상은 구석진데로 옮겨지고 군부독재자들의 동상안내판들에는 《신군부의 수괴로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장악》, 《계엄군을 동원한 5.18민주화운동 무력탄압》, 《6월민주항쟁에 굴복해 6.29선언발표》 등 《범죄》리력서까지 밝히기로 하였다고 한다.

죄는 지은데로 간다고 살인마들이 받은 응당한 대접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전두환, 로태우역도로 말하면 권력탈취를 위해 광주를 피바다에 잠그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극악한 살인마, 군사독재자들이다.

그 죄악은 너무도 크고 치떨리는것이여서 수십년이 지난 오늘도 사람들은 살인마들을 저주하며 처형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열번 더 처형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인간백정들을 찬양하여 오래전에 동상까지 만들어 세워놓았으니 사람들이 격분하지 않을수 없다.

오늘에 와서 이 살인마들의 동상이 사람들로부터 괄시와 천대를 받고있는것은 그가 누구이든 반인민적, 반민족적죄악을 저지른자들은 어느 때든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신군부파쑈살인마들의 후예들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지금껏 광주시민들의 피로 두손을 적신 전두환, 로태우역도들의 죄악을 극구 비호두둔해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광주에 찾아가 무릎꿇고 《사과》하고 거짓눈물을 흘리는 등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면서 어떻게 하나 권력을 다시 쥐여 피비린내나는 파쑈독재시대를 되살려보려고 발광하고있다.

그러나 민심의 눈은 속일수 없으며 죄많은자들은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기마련이다.

김정혁